

플라 스틱 재 생 원 료

목 차

A.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의사 및 실제 제품 구매 시 결정 요인

- 4p 조사대상 1,000명 가운데 89.9%가 재생원료 제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
- 5p 제품 구매 시 재생원료 사용 여부보다 '기능성, 디자인, 가격'을 중요하게 여겨

B.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 7p '재생원료 제품 수를 확대 필요'에 83.2%가 응답, 안전성 신뢰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9p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아

C.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수요 활성화 방안

- 15p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가격과 긍정적 사회 인식,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
- 16p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필요한 요소, 투명한 통계 데이터 구축과 공유가 필요

[부록] 플라스틱 재생원료 기준

들어가며

보고서 개요

페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제품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 20대~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일간 온라인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24년 8월 27일 ~ 2024년 9월 1일, 조사기관: 엠브레인 리서치)

환경부는 국내 페플라스틱을 재생 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 '23.3.28. 및 시행 '24.3.29.)

'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페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 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 비율을 제품, 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 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

본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는 페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및 새 플라스틱 사용 감량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 시행 6개월 후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실제 재생원료 활용 제품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생원료 활용 제품'에 대해 조사범위를 설정하였다.

결과 개요

- 일반국민 1,000명 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수용도 76%로 나타났으나, 재생원료 제품이 실제로 안전하게 제조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정부 간 협상 회의(INC-5)에 대한 인식은 26%에 불과하여 정부는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이 시민의 일상과 연결되어있음을 인식시키는 사회적 공감대 제고가 중요하다.

문의

- 작성 :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팀
신혜지 선임연구원, 서희원 전임연구원
- 전화 : 02-766-4351
- 주소 :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306호
- E-mail : info@climatechangecenter.kr
- 홈페이지 : www.climatechangecenter.kr

A.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의사 및 실제 제품 구매 시 결정 요인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는 재생원료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거나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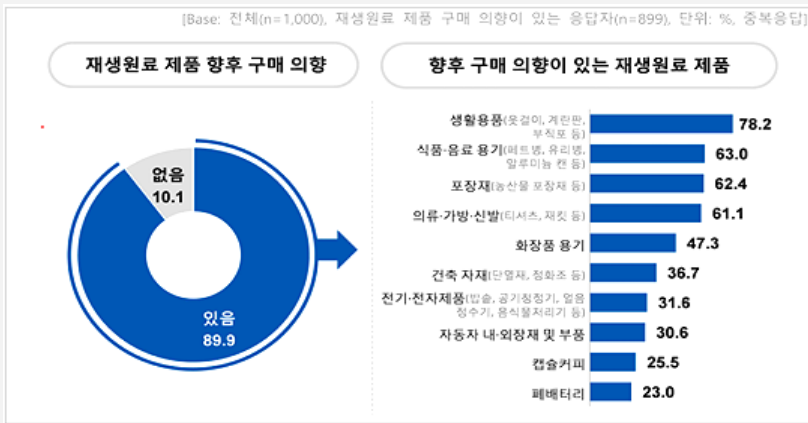


A.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의사 및 실제 제품 구매 시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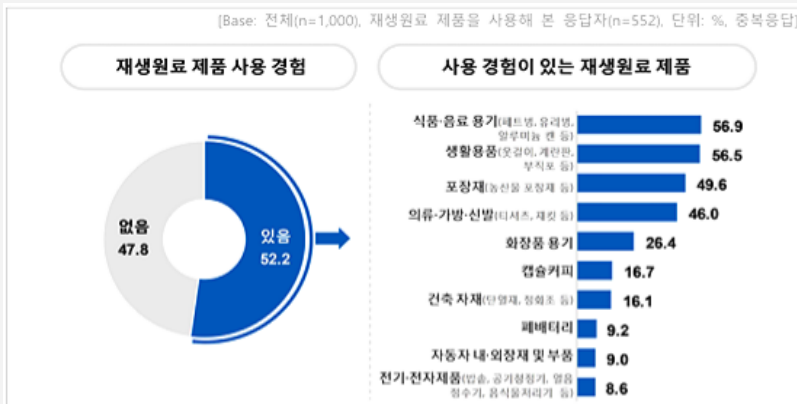
① 국민 1,000명 가운데 89.9%(899명)가 재생원료 제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

응답자들은 향후 구매 의향이 있는 재생원료 제품으로 생활용품과 식품/음료 용기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이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군이다.



1위로 꼽힌 제품군은 생활용품(옷걸이, 계란판, 부직포 등)이 78.2%(782명)이며, 식품/음료 용기(페트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 등)가 63%, 포장재(농산물 포장재 등) 62.4%로 뒤를 이었다.

특수 목적 소비 제품군 중에는 의류/가방/신발(티셔츠, 재킷 등) 61.1%로 유사하게 높은 구매 의향을 보인 반면, 화장품 용기는 4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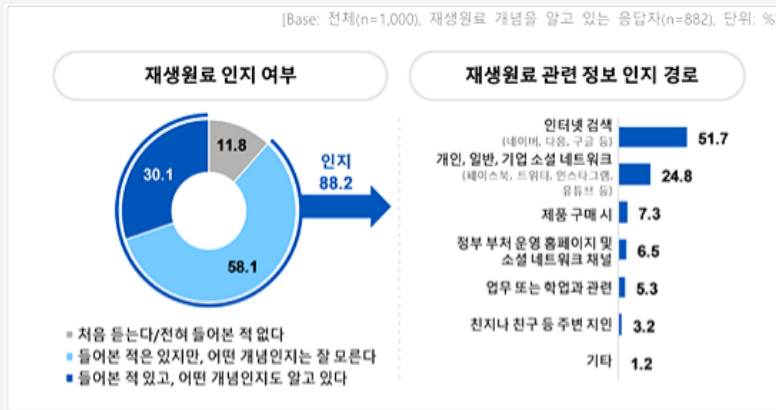
A.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의사 및 실제 제품 구매 시 결정 요인

실제로 재생원료 제품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52.2%가 사용 경험이 있었으며 사용 경험이 있는 제품군에서 생활용품과 식품/음료 용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화장품 용기의 사용 경험은 26.4%로 매우 낮았다. 이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업계의 미비한 노출로 인해 제한적인 상황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화장품 기업들의 재생용기 사용 촉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제품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침을 제공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제품 구매 시 재생원료 사용 여부보다 '기능성, 디자인, 가격'을 중요하게 여겨

소비자의 재생원료 관련 정보 습득 경로와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정보 탐색과 구매 결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였다.



응답자의 51.7%가 재생원료 관련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장 많이 접했고, 그 다음 24.8%가 개인/일반/기업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품 구매 시에 정보를 얻은 경우는 7.3%로 매우 낮았다. 구매 시에는 제품 자체의 특성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제품의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재생원료 사용 여부보다는 '기타 요소(기능성, 디자인, 가격 등)'에 대한 관심이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는 재생원료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거나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서, 재생원료 제품이 실제로 안전하게 제조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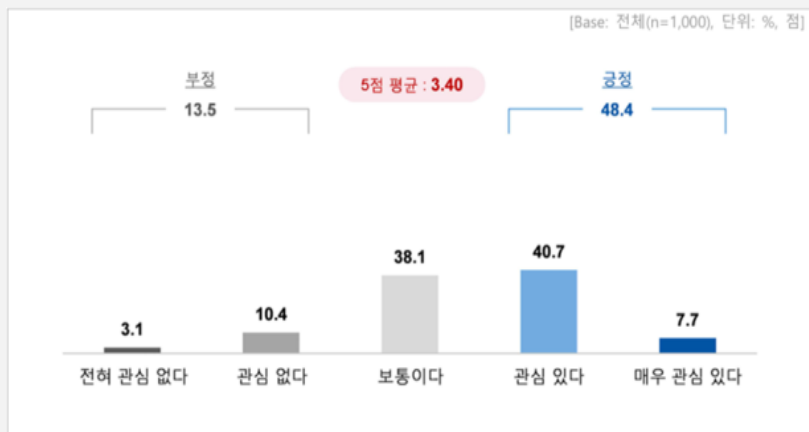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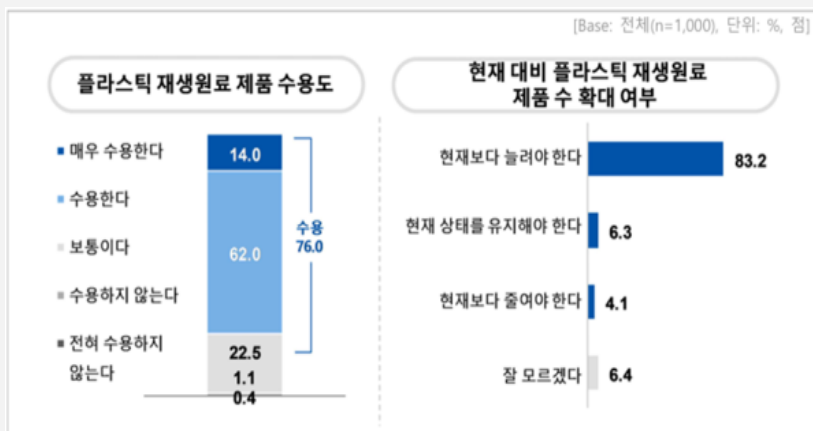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① '재생원료 제품 수를 확대 필요' 83.2%가 응답, 그러나 안전성 신뢰 부족 문제 해결 필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플라스틱의 종류(재질, 생분해, 재생원료 등)를 확인하는 등 원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5점 평균 점수 중 3.4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료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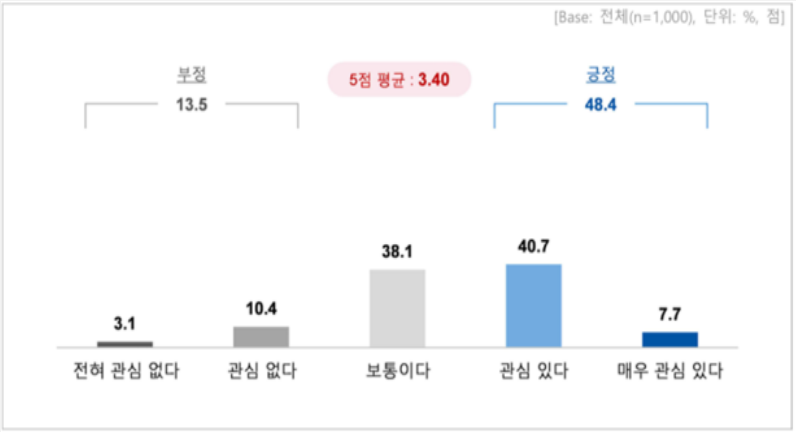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을 수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76.0%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83.2%로 가장 높았다.



B.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또한 '재생원료 제품 사용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으로 '환경/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7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치 소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가 45.0%의 의견이 나타났다. 3번째는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23.0%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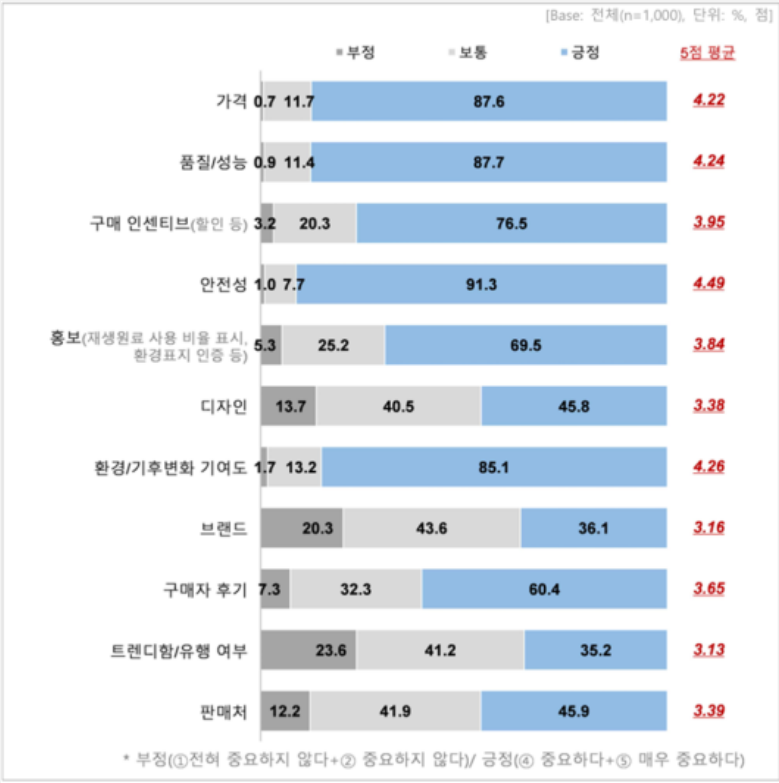
이로 미루어 보아 구매 과정에서 재생원료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나 소비자의 제품 수용도가 높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가치 소비 기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재생원료의 정보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보다, 제품의 기능성과 품질에 대한 강조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장점을 적절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B.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②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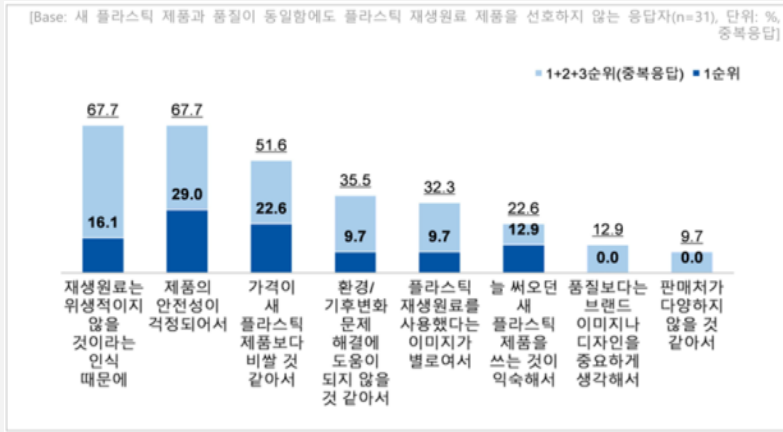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의 구매 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4.49점)이 가장 높았고, ▲환경/기후변화 기여도(4.26점), ▲품질/성능(4.24점), ▲가격(4.2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트렌디함/유행 여부(3.13점), ▲브랜드(3.16점), ▲디자인(3.38점) 등의 구매 요소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만약 새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과 동일함에도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1+2+3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생원료는 위생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및 ‘제품의 안전성이 걱정되어서’가 각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품의 안전성이 걱정되어서(29.0%)’, ‘가격이 새 플라스틱 제품보다 비쌀 것 같아서(22.6%)’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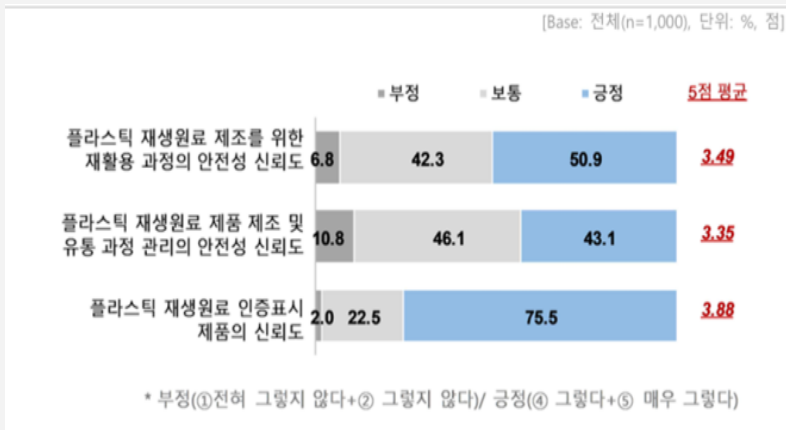
B.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를 위한 재활용 과정의 안전성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 관리의 안전성 신뢰도가 5점 만점에 3.35점으로 가장 낮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를 위한 재활용 과정의 안전성 신뢰도(3.49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 결과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표시 제품으로 3.88점을 기록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 등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다소 낮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서, 재생원료 제품이 실제로 안전하게 제조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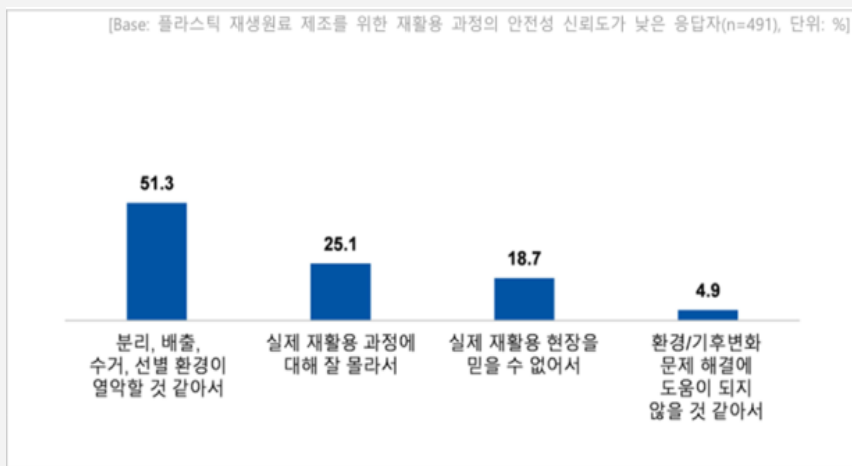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를 위한 재활용 과정의 안전성 신뢰도

각 항목별 보통+부정 응답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했다. 신뢰가 부족한 주요 원인으로는 '분리, 배출, 수거, 선별 환경이 열악함'(51.3%)을 우려하는 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실제 재활용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25.1%)과 '재활용 현장에 대한 신뢰 부족'(18.7%)이 주요 원인이었다.

분리배출과 수거 과정의 열악함이 가장 큰 불신 요인으로 지적된 점은, 첫째로 초기 재활용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재활용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소비자 신뢰 부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소비자들이 실제로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품질 관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또 재활용 현장에 대한 신뢰 부족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재활용된 제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재활용 시설의 신뢰성 부족이나 기술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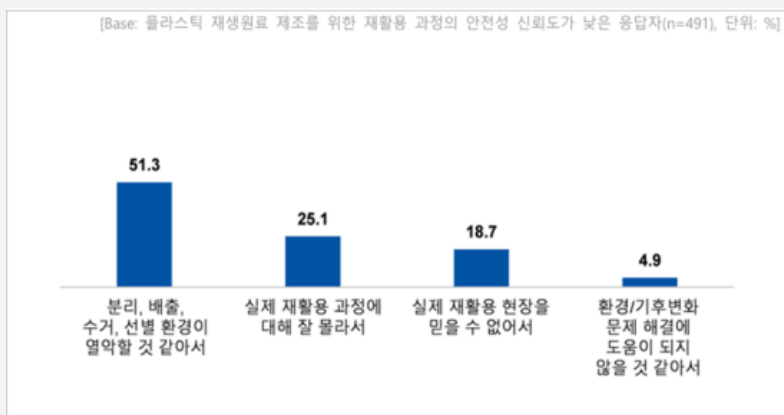
B.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 관리의 안전성 신뢰도

신뢰가 낮은 주요 요인은 ‘환경적 열악함’(36.6%), ‘현장 신뢰 부족’(30.4%), ‘정보 부족’(28.3%)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세척, 분쇄, 제조, 유통 환경이 열악할 것 같다’는 응답은 소비자들이 재생원료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이지 않거나, 환경적으로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조 시설의 열악한 환경이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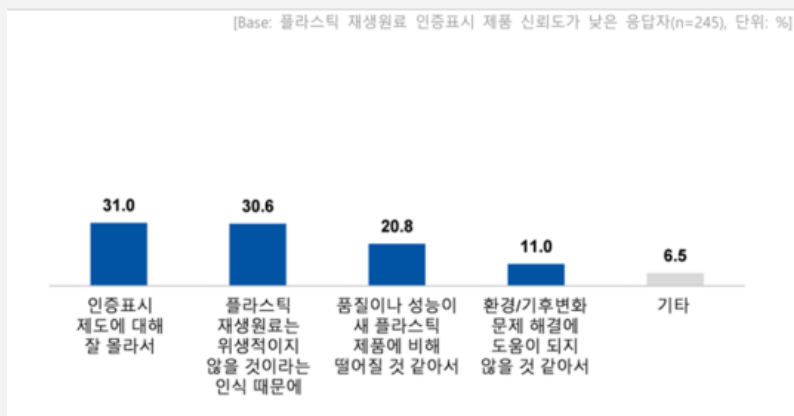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표시 제품 신뢰도

신뢰도가 낮은 주요 원인은 ‘인증표시 제도에 대한 무지’(31.0%), ‘위생적 불안감’(30.6%), ‘품질 불신’(20.8%)이 있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인증표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인증이 있더라도 재생원료의 위생에 대해 높은 불안도가 나타났다. 이는 인증 제도의 정부 부족과 소비자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증표시 제도의 목적, 기준, 절차 등의 명확한 홍보 외에도 인증 제도가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로 소비자들은 재생원료가 위생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는 과거의 불완전한 재활용 처리나 관리 소홀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한 불안감일 수 있다. 위생 인증이나 안전성 인증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제조 공정과 위생 관리 과정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품질이나 성능의 낮은 신뢰도는 기술적 불신이나 품질 관리의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라 볼 수 있다.

B.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방해 요인과 해결 방안



연령별 신뢰도 차이에서 만 60-69세는 '품질이나 성능이 새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떨어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을 중요시하며,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품질 불신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품질 보증과 검증된 제품의 성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 50-59세는 '위생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위생과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여 위생적 관리와 청결한 제조 공정에 대한 강조를 위해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인된 검사기관의 인증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C.

플라스틱 재자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수요 활성화 방안

"응답자의 대부분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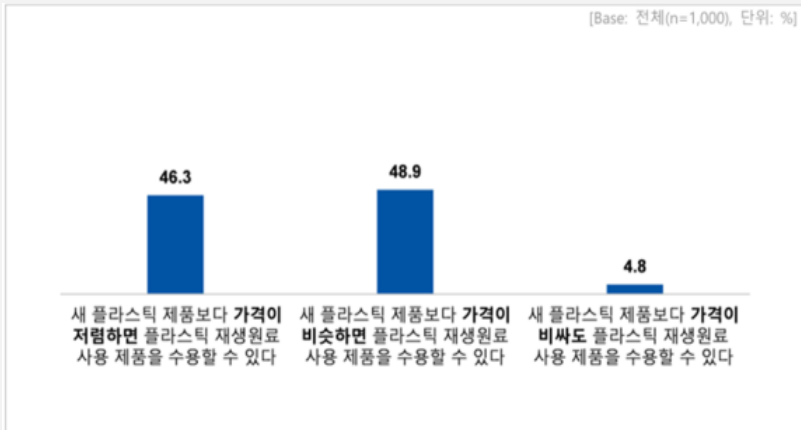


C.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수요 활성화 방안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가격과 긍정적 사회 인식,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

아울러 가격도 중요한 요소로 재생원료 사용이 가격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망설일 수 있다.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새 플라스틱 제품 대비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새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비슷하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새 플라스틱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4.8%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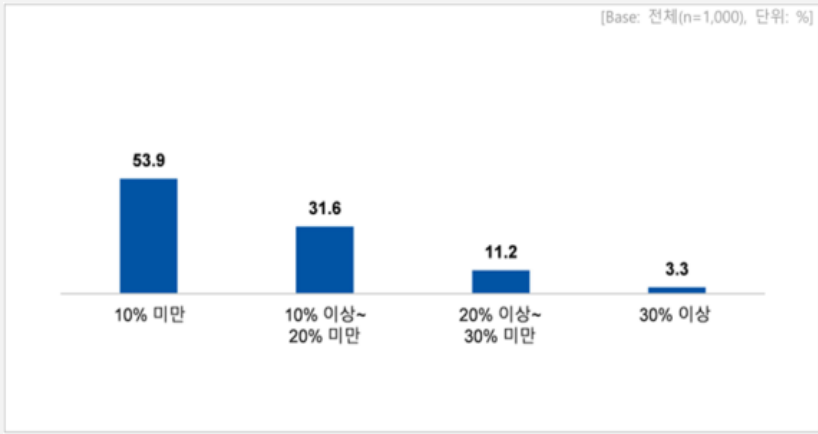
2024년 3월 한국 맥도날드 측에 따르면 재생 플라스틱 원료는 페트병을 수거해 압착·소독 등의 과정을 거치면 기존 플라스틱 원료보다 가격이 20%가량 높다. 아이스크림 컵에 100% 재생 페트(r-PET) 제작을 우선 적용하고 2025년까지 테이크아웃 커피 컵까지 100%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4.03.06, 뉴스1)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 대비 몇%까지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10% 미만'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재 수준인(2024년 3월 기준) '20% 이상-30% 미만'은 11.2%로 낮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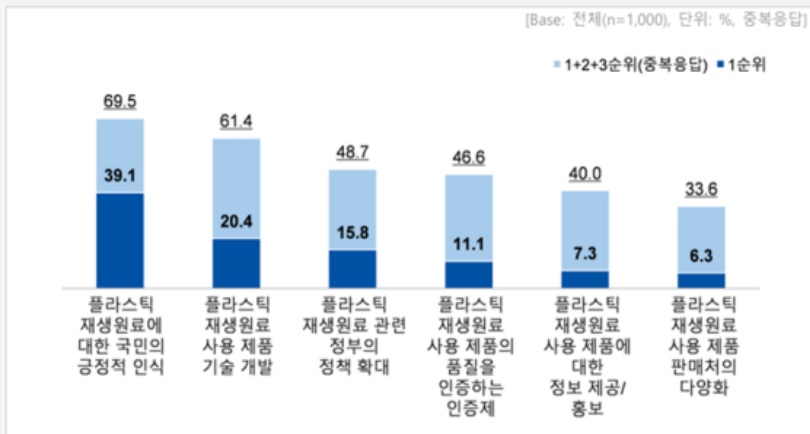
따라서 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생산 및 수요 확대 방법을 모색하거나,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생원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 가격은 공정하게, 품질은 더 좋게"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재생원료 사용 사례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함께 홍보한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치'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C.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수요 활성화 방안



②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필요한 요소, 투명한 통계 데이터 구축과 공유가 필요



무엇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으로 국민의 긍정적 인식, 기술 개발, 정부의 정책 확대가 꼽혔다. 먼저, 국민의 인식 강화(69.5%)를 위해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기술 개발 촉진(61.4%)을 위해 투자 확대,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새로운 재활용 기술 연구 및 상용화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역할을 강화(48.7%)한다면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재활용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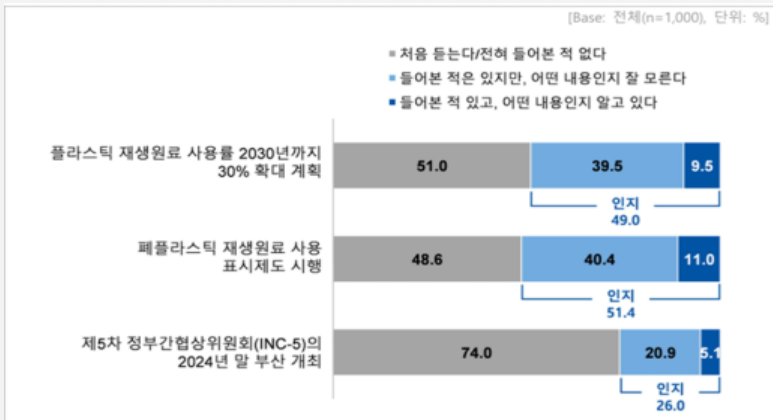
C.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수요 활성화 방안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환경부는 2025년부터 페트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최종제품생산자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생산업체들은 원료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페트 재생원료 사용비중 '10% 의무화'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비중을 어겼을 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정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그간 재생원료는 신재 대비 1.5배 비싼 상황으로 의무 없이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컸던 상황이다. 앞으로 통계기반을 마련해 처벌 근거에 활용하고 시장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활용 원료 실적이 통계로 제시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급 현황, 품질 수준, 가격 변동 등의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그 결과, 최종제품생산자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더 많은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제품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와 개발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정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수준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포함해 'UN환경계획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했다.

C.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수요 활성화 방안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관련 정책 및 국제협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나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일정 수준이지만, 부산에서 열렸던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정부 간 협상 회의(INC-5)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환경 정책이 시민들 사이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정책이 시민의 일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 인증제나 재활용률 확대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지, 또는 자원 순환 경제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정책 협상 과정이 시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 지어 설명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부록.

재생원료 관련 법률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 표시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4. 11.]
현행법(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자원재활용법 제33조
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신설[2023.3.28.]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사용되는 재생원료	적용 대상	사용 비율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 하는 재생원료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퍼센트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20퍼센트
	다. 그 밖의 제품·용기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용기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

부록.

재생원료 관련 법률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

[별표 2]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제4조 관련)

1. 재생원료는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각 호의 원료 중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사용비율은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적용대상별 최소한도를 적용하며, 다음 산식을 따른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 해당 제품·용기의 출고량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4. 1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2.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4. 8. 29.] [환경부예규 제751호, 2024. 8. 29., 제정]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